

# 소유경영자의 혁신지향성과 혁신성과: 수요자 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은화<sup>1</sup>, 유재욱<sup>2\*</sup>, 김추연<sup>3</sup>

<sup>1</sup>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sup>2</sup>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up>3</sup>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Owner Managers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Firms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user innovation

Eunhwa Lee<sup>1</sup>, Jaewook Yoo<sup>2\*</sup>, Chooyeon Kim<sup>3</sup>

<sup>1</sup>Ph.D. Candidat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sup>2</sup>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sup>3</sup>Ph.D. Candidat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에 응답한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유경영자들의 기업가 지향성이 수요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에서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을 기업가 지향성의 대용변수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유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과 혁신성과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고, 수요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활동은 이 같은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소유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성과가 높아질 수 있으며, 수요자 참여를 통한 소유경영자의 시장지향적인 개방형 혁신 활동은 혁신성과를 한층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소유경영자, 기업가 지향성, 수요자 혁신, 혁신 성과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of owner managers on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through user innovation participation by using Korea Innovation Survey 2014 (KIS 2014) conducted by 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The findings show tha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owner managers measured by a proxy variable of ownership ratio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novation performance of firms. They also present that user innovation activity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owner managers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fir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the owner manager, the higher the innovation performance. The innovation performance can be intensified when the open innovation strategy is implemented through the user participation.

**Key Words** : Owner manager, Entrepreneurial orientation, User innovation, Innovation performance

## 1. 서론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달리 국내기업들의 경우 높은 지분율을 가진 소유경영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소유경영자는 주주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행사한다[1,2]. 그리고 이러한 경영권 행사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3-5]. 실제 소유경영자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고객 니즈와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혁신활동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성공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을 회피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기업의 소유경영자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아마도 소유경영자들의 기업이 지향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6-10]. 즉 시장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도모하게 해주는 기업가 지향성이 소유경영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은 신제품의 개발에 있어 고객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수요자 참여 방식의 개방형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소유경영자들의 기업이 지향성은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소유경영자들의 기업이 지향성이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혁신의 원천을 기업 외부로 확장하여 개방형 혁신활동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고, 이를 통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6,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와 기업이 지향성에 대한 주장들에 기초하여 경영자들의 지분율로 측정된 국내기업 소유경영자들의 혁신지향성이 소비자 기반의 개방형 혁신과정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소유경영자의 기업이 지향성과 혁신성과

‘최고 경영자 이론(Upper Echelons theory)’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배경적 특성과 성향은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7,9]. 이 같은 관점에서 기업가 지향성은 최고경영자가 위험에 대해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리적 성향으로 정의되어 왔고,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최고경영자의 기업이 지향성이 높으면 기업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혁신 전략을 추구하기 쉬우며[3,10],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6-10].

하지만 기업이 지향성의 정도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예로 전문경영자는 짧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보상의 불이익과 해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지향성이 낮을 수 있다[3-5]. 반면 소유경영자는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고 장기적인 기업성과에 따른 높은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업이 지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1]. 특히 국내 소유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1,3,4]. 동일한 관점에서 지배구조 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여 기업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4,5].

### 2.2 수요자참여 개방형 혁신활동과 혁신성과

최근 제품수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자들보다 시장 환경변화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방형 혁신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하여 혁신 활동과 성과를 강화하는 행위들로 정의된다[12,13]. 또한 외부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내향형 혁신과 내부의 기술을 외부로 유출시켜 공유함으로써 가치를 향상시키는 외향형 혁신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최근 P&G, 인텔과 같은 다국적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2,14-16].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최종소비자인 고객을 혁신의 원천으로 하는 내향형 수요자 혁신(user-innovation)이

시장트렌드 분석과 혁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15].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에 참여하여 혁신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17-20], 특별히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 활동은 급진적인 혁신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19, 20].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특성들이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2.3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의 매개효과

최근 수요자인 고객들은 단순한 마케팅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과 같은 지식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17]. 즉 고객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들을 제품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이 기업들에게 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경쟁자보다 더 빨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성향은 경영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유경영자는 전문경영자들에 비해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다 [6,1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영자의 혁신 지향성이 높을수록 탐사형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경쟁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시하였다[9]. 또한 동일한 소유경영자의 경우에도 보유지분율에 따라 위험 감수성과 혁신 지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소유경영자의 보유 지분율로 측정된 혁신 지향성이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를 예측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6].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가설

국내 제조기업 소유경영자들의 기업이 지향성과 혁신 성과 간의 관계와, 이 같은 관계를 매개하는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연구모형과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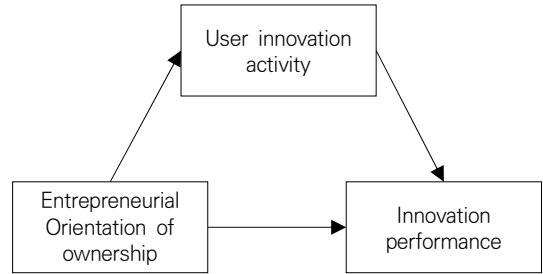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가설1. 소유경영자 지분율과 혁신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소유경영자 지분율과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 활동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과 혁신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은 소유경영자 지분율과 혁신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2 연구대상 및 표본선정

연구대상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했던 2014년 '한국제조기업 혁신조사'에 응답한 1267개 기업들이다. 그 중 수요자 참여 혁신활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4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중 연구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상장 폐지된 기업들은 제외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 중 소유경영자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서 소유경영자 및 외부 대주주 지분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168개 기업을 최종적인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종속변수인 혁신성과는 시간적인 지연 없이 제품혁신 성과로 신청과 등록이 가능한 특허출원수로 측정했고, 해당 데이터는 설문조사 응답에서 추출하였다[21].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국내기업들은 소유경영자가 존재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1,3], 소유경영자들은 지분율에 따라 상이한 위험 감수성과 기업이 지향성을 나

타낼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기업이 지향성은 선행 연구들에서와 달리 소유경영자의 지분율로 측정했는데, 지분율에 따른 수요자 참여 혁신활동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지분율 자료는 성과자료보다 1년 앞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 활동은 설문내용 중 '고객이 혁신활동 및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우' 와 '고객이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하거나 개발한 신제품을 귀사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경우'에 대한 응답 항목들을 통해 측정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17, 18].

회귀분석에서는 총 직원 수의 로그 값으로 측정된 기업규모와[18], 설문조사 시점에서 설립 년도를 차감하여 측정된 기업연령의 효과를 통제하였다[18]. 더불어 기업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 수, 일인당 R&D 비용,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3,18,21].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Table 1은 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하는 기술통계량이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168)**

	Min	Max	M	SD
1.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0	61	5.46	10.661
2. Ownership ratio of owner manager	1.06	100.0	15.887	14.594
3. User innovation	.00	6.00	.893	1.7613
4. Foreign investor ownership ratio	.00	23.33	.4337	2.250
5.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ratio	.00	31.40	3.620	6.1069
6. R&D personnel	0	83	12.07	14.348
7. Per innovation cost	.00	662.56	12.997	53.816
8. Size	3.53	8.37	5.787	0.9103
9. Age	.00	73.00	30.791	17.692

1) \*\*\*p < .001 \*\*p < .01 \*p < .05

주요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에 대한 Table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유경영자 지분율, 수요자 혁신과 특허출원 간에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매우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Pearson Correlation (n=168)**

	1	2	3	4	5	6	7	8
1	1							
2	.272**	1						
3	.351**	.165*	1					
4	.102	-.106	.214**	1				
5	.030	-.062	.181*	-.015	1			
6	.154*	-.014	.220**	.114	.018	1		
7	.032	-.084	-.001	-.021	.007	.112	1	
8	.277**	.025	.203**	.184*	.138	-.011	.005	1
9	-.065	-.014	-.075	-.037	-.155*	-.212**	-.130	.087

\*\*\*p < .001 \*\*p < .01 \*p < .05

### 4.2 가설 검증

Table 3은 제시한 가설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유경영자 지분율은 기업의 혁신성과와 유의한 정(+)의 관계( $\beta = .276, p = .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1 지지). 또한 소유경영자 지분율과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 $\beta = .184, p = .008$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2 지지),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과 혁신성과 간에도 유의한 정(+)의 관계( $\beta = .297, p = .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3 지지).

**Table 3. Regression analysis (n =168)**

	Step1(H1)	Step2(H2)	Step(H3)
(상수)	(-3.128**)	(-1.846)	(-2.196*)
Foreign investor ownership ratio	0.066 (0.935)	0.188 (2.533*)	-0.017 (-0.222)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ratio	0.001 (0.042*)	0.171 (2.219*)	-0.067 (-0.897)
R&D personnel	0.140 (1.891)	0.198 (2.674**)	0.081 (1.080)
Per innovation cost	0.034 (0.463)	-0.006 (-0.080)	0.015 (0.208)
Size	0.264 (3.549**)	0.143 (1.922)	0.235 (3.132**)
Age	-0.047 (0.631)	-0.010 (-0.128)	-0.055 (-0.735)
Owner manager Ownership ratio	0.276 (3.810***)	0.184 (2.669**)	
User innovation			0.297 (3.849***)
R <sup>2</sup>	0.181	0.177	0.182
Adj. R <sup>2</sup>	0.145	0.141	0.147
F	5.047***	4.906***	5.096***

1) \*\*\*p < .001 \*\*p < .01 \*p < .05

2) The values for each variable are standardized beta values.

3) ( ) is t value.

다음으로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에서 산출한 직접분포와 신뢰구간을 활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Process Macro Bootstrapping 분석을 실행하였다. Bootstrapping 분석은 데이터에 대한 추출과정을 반복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결과 Table 4에 따르면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의 영향을 포함할 경우에도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여전히 유의하며,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설4 지지).

Table 4. Bootstrap test of mediating effect

		b	se	t	p
Total effect and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of ownership ratio on innovation	H1	.202	.053	3.810	.000
The effect of ownership ratio on user innovation(a)	H2	.023	.009	2.669	.008
The effect of user innovation on innovation(b)	H3	1.492	.464	3.217	.002
The direct effect of ownership ratio on innovation		.167	.053	3.171	.002
Indirect effect (ab)	Boot SE	BootLLCI	BootULCI		
Mediating effect	Bootstrap Verification Result	H4			
Effect	0.035	.018	.007	.089	

\* b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다음으로는 전문경영자 기업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자 혁신에 응답한 기업 중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 표본(n=99)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행하였다. Table 5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자 지분율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 $\beta = .047, p = .644$ )와 전문경영자 지분율과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 간의 관계( $\beta = -.167, p = .1$ )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짧은 임기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전문경영자의 경우 소유경영자와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이 높은 제품혁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공정혁신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Step1(H1)	Step2(H2)	Step(H3)
(상수)	(-2.013**)	(-0.479)	(-1.816)
Foreign investor ownership ratio	0.064 (0.631)	0.172 (1.711)	0.013 (0.132)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ratio	-0.148 (-1.451)	0.245 (2.428*)	-0.198 (-2.025*)
R&D personnel	0.004 (0.043)	0.197 (1.932)	-0.043 (-0.426)
Per innovation cost	0.041 (0.405)	0.116 (1.147)	0.016 (0.160)
Size	0.343 (3.309**)	0.071 (0.697)	0.306 (3.107**)
Age	-0.137 (-1.349)	0.058 (0.582)	-0.153 (-1.570)
professional manager Ownership ratio	0.047 (0.464)	-0.167 (-1.661)	
User innovation			0.291 (2.902**)
R <sup>2</sup>	0.181	0.172	0.221
Adj. R <sup>2</sup>	0.145	0.108	0.161
F	2.312*	2.699*	3.690**

1) \*\*\*p < .001 \*\*p < .01 \*p < .05  
 2) The values for each variable are standardized beta values.  
 3) ( ) is t value.

## 5. 결론

본 연구는 소유와 경영의 일치정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유경영자들의 지분율로 측정된 기업이 지향성과 혁신성과 간에 관계와 이들 관계에 대한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유경영자의 보유 지분율이 높을수록 전략적 의사결정과 실행에 대한 자율성과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지향성이 높아지고, 이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높은 소유경영자일수록 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요자 참여의 개방형 혁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는 결국 혁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소유경영자의 기업이 지향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성과가 높아질 수 있으며, 수요자 참여를 통한 소유경영자의 시장지향적인 개방형 혁신활동은 혁신성과를 한층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제조사의 실무자들은 최고경영자 유형에 따른 소비자 참여형 혁신활동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경영자들의 기업이 지향성을 주로 설문문을 통해 측정해온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와 달리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상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소유경영자의 지분율로 기업이 지향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더불어 이들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경쟁우위 창출방식인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의 매개효과를 통해 고찰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분야와 개방형 혁신 분야의 주장들에 기초한 모델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성과향상을 위한 두 분야의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가치와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둘째, 동일한 소유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최초설립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기업이 지향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이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셋째, 소유경영자의 기업이 지향성에 기초한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부문의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영자의 기업이 지향성이 수요자 참여 개방형 혁신활동을 통해 재무성과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상기에서 기술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K. S. Park. (2017).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Korean management review*, 46(3), 625-662.
- [2] W. S. Choi & W. B. Lee. (2005). Is Family Ownership a Determinant of Firm Performance?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18(1), 121-155.
- [3] S. E. Kim. (2015).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Innovation of Firms. *Journal Finance and Accounting Information*, 15(4), 35-57.
- [4] H. S. Kim & J. Y. Song. (2011). The impact of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on R&D investment in Korea.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4(2), 93-112.
- [5] Eugene F. Fama & Michael C. Jensen. (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26(2), 301-325.
- [6] W. Stam & T. Elfring. (2008).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ew Venture Performance : The Moderating Role of Intra and Extra industry Social Capit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1(1), 97-111.
- [7] Hambrick, D. C., & Mason, P. A. (1984). Upper Echelons :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3-206.
- [8] I. S. Kim, K. S. Yoo & Y. D. Kim.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Venture Enterprises on the Increase Firms' Revenu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8), 329-341.
- [9] M. C. Ho. (2012). The Performance Consequences of Aligning CEO Characteristics with Competitive Strategy in Korean Manufacturing Venture Firm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1(2), 3335-3355.
- [10] S. K. Han, J. W. Yoo & C. Y. Kim. (2017).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Performance and R&D Investment :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6(3), 219-237.
- [11] D. S. Jeong. (2018). Effect of External Network On the Innovative Performance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8)2, 221-230.
- [12] B. K. Cho & S. H. Kim. (2013). The Impact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on New Product Develop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24(1), 1-23.
- [13] Chesbrough, H. W.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14] D. B. Chun & B. G. Kim. (2017). The Effect of R&D Cooperation of Manufacturing Firms on Innovation Activiti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0(4), 1192 -1211.
- [15] C. S. An & Y. D. Lee. (2009).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and Performance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pp. 146-161). Daejeon : KOTIS
- [16] S. Y. Han. (2010). Innovative Innovation Determinants and Performance Analysis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pp. 97-110), Seoul : KOTIS
- [17] J. G. Lee & D. M. Lee. (2017). A Study on the Antecedents and Market Performance of Value Co-Cr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0(11), 2015-2036.
- [18] B. K. Sohn, Y. B. Kim & K. N. Kang. (2016). Role of

Customers on Innovation of Firm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9(4), 1397-1417.

- [19] Lettl, C. (2007). User involvement competence for radical innovation.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24(1), 53-75.
- [20] Cui, A. & Wu, F. (2016). Utilizing Customer Knowledge in Innovation: Antecedents and Impact of Customer Involvement on New Product Per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4(4), 516-538.
- [21] S. H. Kim & J. H. Kim.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formance of Open Product Innovation : Product Innovation Strategy, Source and Partner Contribution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4(4), 685-703.

이 은 화(Eunhwa Lee)

[학생회원]



- 2013년 2월 :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MBA)
- 2015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기업지배구조, 통제 매커니즘, 혁신전략
- E-Mail : tobejjan@konkuk.ac.kr

유 재 옥(Jaewook Yoo)

[정회원]



- 2005년 8월 :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기업지배구조, 경쟁전략, 혁신전략
- E-Mail : jwyoo@konkuk.ac.kr

김 추 연(Chooyeon Kim)

[학생회원]



- 2016년 2월 : 건국대학교 경영전문 대학원 석사(MBA)
- 2016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혁신전략, 기업지배구조
- E-Mail : chookim@konkuk.ac.kr